중부유럽에서의 독일어의 위상과 역할*

임성우**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Deutsch*의 형성과 발전
3. 독일어의 언어접촉과 언어변천
4. 중부유럽에서의 독일어의 위상
5. EU의 확대정책과 독일(어)의 역할
6. 나오는 말

【국문초록】

'독일의' 또는 '독일어'의 의미를 가진 *Deutsch*의 형성과정을 보면 이는 단순히 한 민족의 언어나 국가명으로 발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이치는 언어명, 민족명, 나라명이였으며, 심지어 18세기 이후부터는 문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도이치 용어의 변천은 독일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언어변천과도 관련이 있다. 다른 유럽의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어는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 등 서유럽의 언어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세계화 경향 속에서 독일어에도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영어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뎅글리쉬'라는 독일식 영어 표현들이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일어의 변화 과정을 보면 외래어와의 접촉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링구아 프랑카'의 지위를 영어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불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 공용어로서 영어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독일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속한 중부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독일어의 위상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동유럽으로의 확대정책에서 나타나는 독일의 역할을 감안해 보면 새롭게 부상할 독일어의 위상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독일어가 서유럽과 중동부유럽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으로 심화하는 데 언어문화적 매개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독일어, 도이치, 언어접촉, 언어변천, EU 확대정책, 중부유럽, 동유럽, 독일어의 위상

1. 들어가는 말

전통적인 유럽의 언어와 문화는 세계화라는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유럽적인 것'으로서의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세계질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이 통합되고 난 이후 오히려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언어적 현상만 보더라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우선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에서 자국어 대신 *Message, Jobsharing, Outfit, Shopping,*

Know-How, Trendsetter, Business, Lifestyle, Power, Service, Team, cool, Feeling 등 영어 단어를 차용 또는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고유한 언어를 지켜야한다는 입장과 외래어를 통해 자국어의 생명력이 더욱 살아난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어로서의 독일어는 끊임없이 외래어의 영향을 받아왔고 이를 통해 현재의 독일어가 형성되었으며, 주변 언어 문화권에도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 독일어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간의 공식적인 통용어나 일상어에서 영어와 프랑스어에 밀려 있지만, 소련 붕괴 이후 중부유럽과 동유럽 지역에서는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어로서의 독일어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중동부유럽에서의 언어사용실태를 토대로 EU의 확대정책에 따른 독일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독일어가 겪고 있는 변천과정과 언어접촉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대 독일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해 기술한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형성된 독일어가 중부유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EU의 동유럽 확대정책에 독일(어)의 역할을 감안하여 향후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의 언어문화 매개자로서의 가능성을 짚어본다.

2. *Deutsch*의 형성과 발전

유럽어로서의 독일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독일(어)의' 또는 '독일어'를 뜻하는 *deutsch*의 어원적 의미와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Deutsch*라는 이름은 독일어의 언어체계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언어명칭은 프랑스어/프랑스인, 영어/영국인, 덴마크어/덴마크인 등과 같이 국가나

민족 명칭에서 파생되었다. 반면 *deutsch*라는 형용사는 언어공동체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이 형용사를 통해서 언어 명칭, 민족과 국가 명칭이 생겨났다.[1] 순서상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은 언어명칭으로서의 형용사 *deutsch*다. 그로부터 형용사의 명사화를 통해 민족명 *der Detusche, die Deutschen*이 생겨났다. *Deutschland*라는 국가명은 *detusches Land*라는 '형용사+명사' 형태를 오랜 시간 사용한 후에야 비로소 정착되었다.[2] 어원상 *deutsch*라는 형용사는 고고지독어(althochdeusch, 줄여서 ahd.)의 형태인 ahd. *diutisk*보다 오래된 게르만어인 **peudiska*-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모든 게르만어 방언에 'Volk(부족 또는 민족)'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있는 **peudo*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이다.[3] Ehrismann(1990: 293-302)은 그의 논문에서 ahd. *deota* 및 거기에 포함되는 파생어 *diutisk*가 단지 *Volk*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ahd. *deota*가 나타내는 상이한 지시적 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지시대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봄으로써 *deota*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공통된 의미 자질을 찾고자 한다. 그는 결국 'Heiland'의 연구를 통해 *deota*가 '일반적인 것, 공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diutisk*는 '어떤 공적인 것, 공공의 것에 속하는'의 의미로 정의된다. Ehrismann (1990: 301-302)에 따르면, *diutisk*

---

1) Reiffenstein, Ingo, "Bezeichnungen der deutschen Gesamtsprache." In: *Sprachgeschichte. Ein Hand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ihrer Erforschung.* Hrsg. v. Werner Besch et al. New York, 1985, p. 1717.

2) Röding-Lange, Ute, *Bezeichnung für Deutschland in der Zeit der Wende.* Dargestellt an ausgewählten westdeutschen Printmedien. Köngishausen/ Neumann, 1997, p. 28.

3) Rupp, Heinz, "Entstehung und Sinn des Wortes deutsch. Ein Forschungsbericht." In: *Deutschunterricht* 3, 1951, pp. 74-79.

는 상이한, 여러 방언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통일된 언어에 대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학적 관점에서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다고 본다.[4]

중세 라틴어 형용사인 *theodiscus*가 하나의 언어명칭으로서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8세기경이다.[5] 하지만 거의 2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고지독일어 ahd. *diutisk*에 대한 몇몇 근거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대략 1000년 경 Notkar는, 예컨대 "독일어로 *auf Deutsch*"라는 의미의 *in diutiskun*의 경우와 같이, 이 단어를 독일어에 대한 명칭으로만 사용하였다.[6] 1050년 경 중세라틴어인 *theodiscus*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teutonicus*가 등장한다. 이시기에 *diutisk*가 중세라틴어 *theodiscus*의 단어의미를 대신하기 시작한다.[7] 11세기 말경에야 비로소 *deutsch*가 아노의 노래(Annolied)에서 국가명(*in diutscemi lant*)과 민족명(*diutschiu liute*)으로 사용된다.[8] 민족명으로서의 *deutsch*는 1200년경에서야 온전히 사용되었으며, *Deutschland*라는 국가명은 15세기부터 보편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9] 언어명칭과 민족명으로서의 *deutsch*라는 어휘의 발

---

4) Ehrismann(1990: 297)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잘못된 평가 및 판단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부담 또는 그로 인한 잘못된 증언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즉, 시대적 소명과 이념 그리고 감정적 요인들이 이 단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때부터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그러한 풍토가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5) 언어명칭으로서의 독일어에 대한 첫 번째 증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eisgerber, Leo, "Theudisk. Der deutsche Volksname und die westliche Sprachgrenze." In: Eggers, Hans(Hrsg.): *Der Volksname deutsch*. Darmstadt, 1970, p. 136 참조.

6) Eggers, Hans, "Nachlese zur Frühgeschichte des Wortes deutsch." In: Eggers, Hans(Hrsg.): *Der Volksname deutsch*. 1970, pp. 375-376 참조.

7) Weisgerber, 앞의 글, p. 110 및 Reiffenstein, 앞의 글, p. 1721 참조.

8) Weisgerber, 앞의 글, p. 164.

9) Berschin, Helmut, *Deutschland - ein Name im Wandel. Die deutsche Frage im Spiegel der Sprache,* München/Wien, 1979, p. 11. 믿기지 않을지도 모

달 과정을 음운론적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그렇다면 *deutsch*라는 어휘의 의미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Berschin(1979: 10)은 *deutsch*의 의미를 5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즉, 그는 *deutsch*가 언어, 민족, 나라(Land), 문화, 국가(Staat)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순서대로 그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18세기까지 *deutsch*는 언어명, 민족명, 나라명이였으며, 이후 괴테 시대에는 문화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다.[11] 1871년 독일 제국이 창건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적으로 '독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으며, 이후부터 *deutsch*가 '국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19세기 말까지 스위스인이든 오스트리아인이든 상관없이 독일어가 모국어인 모든 사람들을 *독일인 Deutscher*이라고 불렀다. 이후 20세기 전환기에 만들어진 *독일어를 사용하는 deutschsprachig*이라는 단어로 인해 '독일어권'이라는 개념이 굳어졌다.[12]

르지만, 이러한 국가명을 공식 이름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한 것은 1949년에 세워진 서독의 국가명인 *Bundesrepublik Deutschland*가 처음이다.

10) 하지만 의미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hrismann, Otfried, "deota/diutisk. Zur frühen Semantik des Wortes deutsch." In: *Sprache in der sozialen und kulturellen Entwicklung. Beiträge eines Kolloquiums zu Ehren von Theodor Frings.* Hrsg. v. Rudolf Grosse. Berlin, 1990, p. 297 참조.

11) Berschin, 앞의 책, p. 11.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국가(Staat)가 아닌 문화를 형성했으며 그들은 국가 개념의 민족이 아닌 문화 개념의 민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12) Berschin, 앞의 책, pp. 11-12. 그 밖에도 *deutsch*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 자질들에 대해서는 Roth, Klaus-Hinrich, *Deutsch. Prolegomena zur neueren Wortgeschichte,* München, 1978, pp. 133-134에 아주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3. 독일어의 언어접촉과 언어변천

1) 서유럽어의 영향과 독일어의 발달

인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언어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규칙들도 인간이 이룩한 문화가 변하는 것처럼 꾸준히 변하고 있다. 독일어는 다른 유럽의 이웃 국가나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웃한 유럽의 언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 발전해 왔으며 거의 끊이지 않고 외래어에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독일어가 민족어(Deutsch)로 정착되기 이전 또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통용어는 독일어가 아닌 외래어였다. 기독교의 시작부터 중세까지 관청이나 법원의 문서나 종교 관련 문학 작품 등 대부분의 글말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입말에도 라틴어를 사용하였다.[13] 라틴어는 18세기까지 학문 활동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중엽까지는 프랑스어가 문학 텍스트에 사용되었으며, 귀족 계급과 일부 시민계급에서 '고급 대화'에 사용하였다. 19세기 말까지 독일어의 차용어의 대부분은 불어였다.[14]

오늘날 유럽인들이 유럽 어디서든 외국어로 된 신문을 펼쳐보면 자신이 사용하는 모국어에서 사용하던 유사한 단어나 문장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단어들의 대부분 중세의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영향을 받았다.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영역

---

13) 로마 제국 시대부터 서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던 입말 형태의 라틴어를 '통속 라틴어(Vulgärlatein)'이라고 한다. Kiesler, Reinhard, *Einführung in die Problematik des Vulgärlateins*. Niemeyer, 2006, p. passim.

14) 이러한 외국어 사용과 외래어 차용 현상이 독일어라는 언어적 유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의식이 독일에서 생겨난 것은 매우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외래어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 뒤늦게 형성된 '민족어(Nationalsprache)' 개념과 민족의식이 한 몫을 했다.

이든 현대에 와서 시작된 영역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범주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접할 수 있다. 예컨대 *Person, Charakter, Intelligeny, Idee, Ideal, Politik, Krise, Skandal, Konflikt, Katastrophe, Energie, Elektrozität, Atom* 등, 어쩌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된 독일어의 경우 더욱 외래어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시작된 오랜 사유들이 후세에 유럽 전역에 걸쳐 퍼져나갔고 이것이 다양한 경험적 측면에서 사용되었다.[15]

독일어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통해서 유럽의 문화어(Kultursprache)로 자리매김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기저에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접두어를 기반으로 한다.

> anti-, contra-, pro-, ante-, prae-, post-, ex-, extra-, ultra-, trans-, inter-, super-, sub-, non-, auto-, mono-, poly-, uni-, bi-, pluri-, multi-, omni-, mikro-, makro-, mini-, maxi-, hyper-, hypo-, pan-, paleo-, neo-, para-, pseudo-, radio-, tele-, video-, biblio-, psycho-, physio-, astro-, cosmo-, hydro-, thermo-, bio-, öko- 등등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두어를 가진 전문어들은 우리가 쓰는 일상어 에도 쉽게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범유럽적 어휘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아랍어의 영향도 받았다.[16] 경제, 건축, 미술, 음악 등의 분야에서는 이태리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1900년대에는 프랑스어 덕분에 유럽인들의 교양어가 훨씬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하지만 이후 영어가 모든 유럽의 언어들에 과도하게 스며들었다.

---

15)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단어들이 없어져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러한 단어들 없이 사유하고 표현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유럽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6) 예컨대 *Alkohol, Zenit* 등이 그러하다.

2) 영어화 현상과 독일어의 생명력

독일어는 영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어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독일어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많은 모국어 화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10번째로 많은 언어 사용자를 갖고 있으며, 독일 이외의 국가들에서 2천만 명 넘는 독일어 학습자가 있다. 그 중 1천 5백만 명이 유럽인들이다. 유럽에서 영어 다음으로 외국어로서 독일어 사용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더 냉혹하다. 실제로 영어 단어들이 독일어에 파고들고 있다. 광고언어나 비즈니스 미팅 상황에서 영어 표현 하나 없이 독일어를 사용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많은 영어 표현들이 독일식으로 잘 못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18]

그렇다면 현재 독일어에 나타나는 영어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 어느 곳의 신문을 펼치더라도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미국식) 영어 단어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영어 단어들이 직접적으로든 또는 파생된 형태로든 독일어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영어화 현상'이라고 한다.[19] 다음의 예

---

17) Spezial Eurobarometer 386, *Die europäischen Bürger und ihre Sprachen.* Bericht, 2012, http://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18) Jessen, Jens, "Schicksal Denglisch." In: *Die Zeit*, 2001sus 3월 8일자 기사 참조.

19) 경우에 따라 영어의 독일식 표현을 *뎅글리쉬 Denglisch*라고도 하는데, 뎅글리쉬는 독일어(Deutsch)와 영어(English)의 합성어다. 단순히 영어단어의 유입뿐만 아니라 미국식 영어와 미국식 개념들이 매스컴과 일상생활

에서 그 심각성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Ich bin very enttäuscht. We need mehr Substanz und Qualität. We must fight to bring back the Zuschauer. Ich habe das Team the first time hier so gesehen, ohne Spirit und Einstellung [...][20]

독일 베를린의 어느 농구팀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독일 어라고 보기에는 영어 표현이 너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운동, 패션, 매체, 여가 등 대부분 현대적이고 세련된 생활패턴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이들 분야의 핵심어휘들은 주로 영어 또는 영어식 표현으로 대체되었다.[21]

전 세계가 글로벌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을 독일어로 바꿀 수는 없다. 예컨대, *web*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이를 대체할 만한 독일어 단어가 마땅치 않다. *Netz*로 하기에는 영어의 *net, network*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독일인들에게도 *Web*이나 *Software*같은 단어들은 독일어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차용해서 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deadline*(일정, 마감기간: germ. *Frist*), *meeting*(회합, 회의: germ. *Versammlung, Besprechung*), *canceln*(취소: germ. *absagen, abbestellen*), *splitten*(쪼개다, 분할하다: germ. *aufspalten*) 등, 이와 같은 영어식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독일어 사용자들은 과도하다고 받아들인다. 영어 단어나 영어식 표현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에 깊숙이 파고드는 추세를 말하므로 이를 '미국화 Amerikanisieurng'으로 보기도 한다.

20) Brüderle, Rainer, "Pattern/Matching im Multiprocessing-Verfahren", *Sprachnachrichten* 2, 2002, p. 16.

21)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의 통신, 항공, 철도 등의 광고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없지만 '좋은 독일어'를 위해 영어식 단어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독일어는 가능하면 많이 쓰자고 주장한다.[22]

최근 도이치 언어문화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독일어의 위상은 영어의 유입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독일어에 유입되고 있는 소위 '미국식 영어화' 현상을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23] 독일어에서 통용되고 사용되는 영어 표현이나 영어처럼 보이는 뎅글리쉬 표현들은 언어적 정보를 얻거나 설득하기 위한 것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세련되어' 보이는 것이 사용 목적이다. 그로인해 이러한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24] 물론 외래어 또는 차용어는 그들만의 기능이 있으며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상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심 어휘들이 외래어, 특히 영어식 차용어로 인해 위협받는다면 이는 그 언어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의 순수성과 고유성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영어화 현상에 대한 독일어 보호정책이 여전히 충

---

22) 독일언어협회 자료(www.vds-ev.de/textbeitraege) 참조.

23) Föhr(2001)은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아니라 자국의 '유행 선도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광고나 매체, 경제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행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즉시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영어 또는 영어식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4) 이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어디에서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폴란드어에 나타나는 미국화 현상에 대해서는 정병권, 「민주화 10년, 폴란드의 문화갈등 연구」, 『동유럽`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pp. 44-48 참조.

25) Föhr(2001)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이유로 독일어와 유입된 외래어 사용의 가치평가가 역전되는 것에서 찾았다. 즉, 독일어 어휘나 표현은 '촌스러운 것, 고루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영어 표현으로 대체된 것은 '세련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26] 심지어 독일어 교사회, 독문학자, 비평가 등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러한 영어화 현상에 맞선 독일어 보호라는 주제는 금기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언어협회(VDS)와 같은 독일어 보호단체들은 독일어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순수하게' 남아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독일어는 외래어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 발전해 왔다.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듯이 언어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면 사멸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내부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현대 독일어에 가장 강력한 외부 자극을 가하는 것은 바로 영어다. 언어순수주의자들에게는 영어가 적대적 언어이며 제국주의 언어이지만, 반면 생기 넘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동경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언어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이미 일상어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어의 사용 영역이 한 단계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어는 외교관들의 언어로서 '링구아 프랑카 lingua franca'[27]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프랑스어는 영어보다 더 단순하고

---

26) 영어화 현상과 관련해서 독일언어협회(VDS)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협회는 영어식 표현이 독일어에 과잉으로 차용되고 독일어 사용에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어 현상에 반대하여 모국어로서의 독일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널리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독일언어협회 홈페이지 www.vds-ev.de/verein).

27) 중세 말에서 근세 초기 서유럽 언어들을 중심으로 어휘수를 크게 줄이고 문법을 단순화한 언어형식이 만들어졌다. 이를 '피진어 Pidgin' 또는 혼합어라고 한다. 이들 언어는 프로방스어와 이태리어를 단순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리서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의 언어요소들을 접목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진어는 동지중해 지역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당시 사용자 중 프랑스인이 많아 이를 '링구아 프랑카'라고 불렀다. 여기에 대해서는 Raith, Joachim, "Lingua franca." In: *Metzler Lexikon Sprache*. Hrsg. v. Helmut Glück. Stuttgart/Weimar, 1993, pp. 367.

더 분명하며 더 적은 어휘 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왜곡되고 방치된 부분을 고치려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다. 프랑스어라고 하면 파리의 '순수 프랑스어'만을 뜻하며, 다른 어떤 프랑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28]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독일어와 같은 개별 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영국이 누렸던 이전의 패권 국가로서의 힘과 현재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영어 사용자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해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 영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인 젊은이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그 곳의 영어 사용자를 만나게 된다. 물론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영어 사용자를 더 많이 접할 수도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그 미국 젊은이가 사용하는 영어가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영어'일 뿐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언어순수주의나 언어보호주의자들이라면 지금의 영어가 갖는 링구아 프랑카의 위상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영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영어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다른 언어와 무리 없이 섞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29] 현재 독일어에 사용되는 영어식 표현은 세계화 현상과 독일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독일어의 언어변천과 발달과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독일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28) Bichsel, Peter, "Englisch macht Deutsch lebendig", *Kölner Stadt-Anzeiger* 2001년 8월 2일자 기사.

29) 위의 글, 같은 곳.

4. 중부유럽에서의 독일어의 위상

독일어는 서유럽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중부유럽에서의 독일어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선 중부유럽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리적 기준으로 유럽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인 상식차원에서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동유럽을 제외하면 중유럽에 속하는 국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문화적으로는 라틴계 알파벳으로 대표되는 서유럽과 키릴문자로 대표되는 동유럽으로 구분된다. 종교적으로는 교황제도와 정교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30] 그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다. 이들 국가들은 슬라브어와 헝가리어를 사용하지만 종교나 역사적 측면에서는 서유럽 지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이들 국가들이 서유럽으로 합류하고자 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31]

중부유럽과 관련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독일은 빼 수 없는 핵심 국가이다. 이미 1871년 빌헬름 1세가 독일을 통일한 후부터 독일의 '동방정책(Ostpolitik)'[32]이 시작되었다. 지

---

30) 이규영. 「탈사회주의와 '중부유럽'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2000, pp. 162-165 참조.

31) 1989년 유럽의 체제가 전환기 이전에 서유럽과 동유럽이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전환기 이후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의 이념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지리적 개념인 '중부유럽'을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중부유럽의 대표자격인 독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부유럽과 동유럽을 다른 개념으로 보고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진일, 「민주화 10년, 중부유럽의 문화갈등 연구」, 『동유럽`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p. 1.

32) 독일분단 시기의 동방정책에 대해서는 김진호, 『서독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 냉전과 데탕트 그리고 독일분단 시기』, 파랑새미디어, 2014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리적 영향력을 높이며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1945년 이후에도 독일은 무역과 결부시킨 동방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다.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의 '중부유럽정책'은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중부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33] 현재 독일의 동방정책은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중부유럽을 발판으로 동유럽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중부유럽에서 독일은 중요한 투자국으로서 중부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도이치 언어문화권 국가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대국이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독일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이 향후 세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독일은 중부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부유럽의 핵심국가인 독일이 동유럽과 서유럽의 갈등을 해소하고 유럽 전체의 이익과 국가들 간의 상호관심사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공통언어로서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4] 최근 들어 독일 정치인들은 세계 경제위기와 유럽 국가들의 제정위기를 겪으면서 독일이 맡고 있는 EU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독일어도 영어나 불어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부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국가들과 접촉하면서부터 이 지역에서 독일어는 경제와 문화 분야의 대표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33) 이규영, 앞의 글, p. 170.

34) EU 기관에서의 공식어와 실무언어의 사용에 관해서는 임성우, 「EU 기관에서의 공식어와 실무언어」, 『EU연구』 제1호, Jean Monnet series 1, pp. 147-166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독일어가 실제 중부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자. 현재 중부유럽 국가들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독일어 학습자	전체 학생	비율
폴란드	2.345.480	6.871.824	34%
체코	440.952	1.685.496	26%
슬로바키아	278.197	802.959	35%
헝가리	442.272	1.769.184	25%

이 숫자는 15년 전 독일 통일 이후의 자료에 비해 줄어든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유럽에서의 독일어 사용자 비율은 불어 또는 여타 서유럽 언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AS International(Linz)이 1995년과 1997년 중부유럽의 외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아래 내용을 보자.[36]

	독일어		영어		불어	
	1995	1997	1995	1997	1995	1997
폴란드	19%	27%	19%	25%	4%	5%
체코[37]	38%	33%	25%	21%	4%	3%
슬로바키아	35%	23%	24%	16%	3%	3%
헝가리	21%	21%	16%	14%	3%	2%

35) Statistische Erhebungen, *Die deutsche Sprache in der Welt*, 2010, pp. 4-12(www.daad.de/de/download/broschuere_netzwerk_deutsch/DeutschlernerzahlenNetzwerk_Tabelle_2010.pdf).

36) IMAS 자료는 "Bitte auf Deutsch!"(www.detlev-mahnert.de/deutsch_in_europa.html)에서 인용함.

37) 13세기부터 독일어는 체코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절정을

이 조사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1995년 6020명과 1997년 6500명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외국어를 잘 구사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다. 이 표를 보면 독일통일 이후 중부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외국어는 독일어로 나타났다. 불어는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외국어 사용자 수와 비교하면 아주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조사한 Spezial Eurobarometer(201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에서의 외국어로서의 독어, 영어, 불어 사용의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어	영어	불어
체코	32%	16%	2%
슬로베니아	30%	31%	3%
슬로바키아	19%	12%	2%
크로아티아	16%	24%	2%
라트비아	15%	18%	1%
폴란드	13%	11%	3%
에스토니아	11%	22%	1%

이루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체코슬로바키아가 출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독일어 영향권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어는 체코에서 공용어의 지위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중동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영향력에 밀려나게 되었다. 독일어가 예전에 비해 그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체코에서 두 개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조사해 보면 체코-독일어 모국어 화자가 22.4%로 전체의 세 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세 미만(14~29)의 젊은 층에서는 위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독일어보다는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독일어 비율이 폴란드의 경우 37:23, 체코의 경우 43:39, 헝가리의 경우 33:26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인천, 「민주화 10년, 체코의 문화갈등 연구. 현대 체코어에 유입된 외래어와 탈표준화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pp. 87-89.

헝가리	8%	6%	1%
리투아니아	7%	10%	1%
불가리아	4%	11%	4%
마케도니아	3%	10%	4%
루마니아	2%	10%	10%
알바니아	2%	33%	7%
총합	11%	12%	4%

그렇다면 최근 중부유럽 국가들에서 독일어 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다음은 2012년 Spezial Eurobarometer(2012: 24)에서 유럽 시민들의 외국어 사용 실태 즉, 외국어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세 언어를 조사한 것이다.

	독일어	영어	기타 언어[38]
폴란드	19%	33%	러)18%
체코	15%	27%	슬)16%
슬로바키아	22%	26%	체)47%
헝가리	18%	20%	불)3%

독일 통일 이후 1995년과 1997년에 조사한 설문 결과를 2012년 Spezial Eurobarometer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영어사용자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EU국가에서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이며, 이는 중부유럽 국가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설문문항의 결과에서는 좀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우선 "자기개발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어"[39]를 선택하는 문항의 결과를 보자.

38) 여기에서는 각 나라별로 외국어의 사용자가 나르게 나타나므로 불어, 러시아어, 슬로바키아어 체코어를 각각 표시하기로 한다.

39) Spezial Eurobarometer, 앞의 글, p. 84.

	독일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폴란드	31%	65%	3%	8%
체코	32%	59%	3%	7%
슬로바키아	44%	63%	4%	8%
헝가리	48%	64%	5%	2%

이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배워야할 외국어"[40]를 묻는 문항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나타난다.

	독일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폴란드	40%	87%	4%	7%
체코	44%	92%	5%	10%
슬로바키아	60%	87%	6%	15%
헝가리	59%	85%	6%	2%

위의 두 설문결과를 보면 중부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독일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개발을 하거나 청소년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언어가 영어 다음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 공영어로서의 영어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중부유럽에서 다른 어느 유럽어들보다 독일어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EU의 확대정책과 독일(어)의 역할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점으로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베를린 제국 의회 의사당과 브란덴

40) 위의 글, p. 91.

부르크 문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공식적인 축하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상인 헬무트 콜(Helmut Kohl)을 비롯하여 많은 독일의 정치인들은 독일 통일을 단순히 '민족 통일'의 의미가 아니라 '유럽적인, 세계적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유럽사적 관점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더 많은 활동 공간을 갖고자 했던 EU의 정책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임시수도인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EU의 확대정책과 독일의 동방정책(Ostpolitik)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1] 왜냐하면 EU의 확대정책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에는 구조적인 전제조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2]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 경제적 독주를 막고 소위 '유럽의 독일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EU 회원국들은 독일을 하루빨리 통합된 유럽의 질서 속에

41) 독일의 '동방정책'이란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동유럽에 대하여 서독이 취한 외교정책을 일컫는다. 1969년 10월에 집권한 브란트 정권은 아데나워 시대로부터의 외교정책이던, 동독을 정식국가로 승인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동유럽 각국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66년부터 암암리에 전개되어 왔던 접근정책의 결과로 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와 국교를 회복한 데 이은 이러한 접근정책으로, 1970년 8월에는 소련과, 그해 12월에는 폴란드와 각각 이른바 '동방조약'을 체결했고, 1972년 6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4대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에 의한 베를린 협정 체결, 12월에는 동서독 기본조약 조인, 1973년 12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교정상화조약 조인, 이어 불가리아·헝가리와 국교를 회복함으로써 숨 가쁜 동유럽과의 외교개선이 이루어졌다. 동방정책을 취하게 된 동기는 동독을 고립시키는 것과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으나 세계정세가 점차 냉전시대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후기에는 경제적인 목적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김진호, 같은 책, p. passim).

42) 최경희·정진규,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체제이행에 관한 연구. 소유권 변화와 유럽연합의 가입과정을 중심으로」, 『동유럽의 민주화: 체제이행의 역동성』, 한국외대 출판부, 2004, p. 151.

편입시키고자 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인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독주를 염려하던 주변국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나 통합된 유럽 공동체에서 독일의 역할은 점차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동유럽과 인접해 있으므로 해서 중동부유럽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EU가 회원국의 확대를 위해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전, 동유럽은 EU와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중동부유럽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비롯해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 제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발칸 제국(신유고 연방,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서쪽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동쪽에서는 러시아, 남쪽에서는 오스만터키 등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다양한 국가만큼 언어와 종교도 서로 달라서 하나의 언어 문화권으로 범주화하기가 쉽지 않다.[43]

독일의 통일과 소련붕괴 이후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은, 지리적으로 중동유럽에 속하는 국가들이 과거의 동유럽적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자신들을 독일을 비롯한 중부유럽의 언어문화권에 포함되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통일 이후의 독일과 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

43) 대부분 슬라브 어족이지만, 헝가리어와 루마니아어는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며, 에스토니아어는 핀란드어와 유사하여 우랄 어족에 속하며, 라트비아어와 리투아니아어는 발트어와 유사하지만 그 뿌리를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100만 명 이상 사용하는 서로 다른 14개 언어 이상이 존재한다. 종교적으로도 로마 카톨릭, 그리스 러시아 정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적 분쟁이 심화되기도 한다(이규영, 앞의 글, pp. 164-166).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EU의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44] 따라서 유럽 연합이 동유럽으로 점차 확대되는 데에는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독일이 EU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수록 베를린이 유럽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경제적 번영을 유럽의 결속과 유대를 통해서만 보장받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EU의 동유럽으로서의 확대는 전략적으로 유럽통합의 심화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U 및 유럽통합의 확대에 대해서 영국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프랑스는 기본적으로는 '심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중동부유럽으로의 확장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독일은 중립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심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권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쉽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를 반기고 있다.[45] 독일의 외교안보정책 중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이 바로 유럽의 지역안보를 중부유럽 및 동유럽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46] 1997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 가입을 승인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일이다.[47] 이로써 독일과 중동부유럽 국가들 사이에 '평화의 동반자' 관계가 확립되었으며 독일은 이들 국가들에게 막대한 차관을 지원하여 이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개혁에 크게 기여하였다.[48] 최근 EU는 독일

---

44) 이규영, 앞의 글, pp. 171-174.

45) 최관규, 「프랑스의 유럽지역주의와 그 한계」, 『유럽의 정치와 경제』, 나남, 2002, pp. 77-78.

46) 고상두, 『통일 독일의 정치적 쟁점』, 오름, 2007, p. 191.

47)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독일이 중동부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일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오스트리아와 동유럽 국가들 간의 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49] 이러한 인프라 구축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EU의 시장경제에 조속히 편입되고 EU는 자신들의 경제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서유럽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자 서둘러 EU에 가입하였고 아직도 가입을 기다리는 국가들이 있다. EU가 중동부유럽으로 확대된 것은 2004년 5월 1일 중동부유럽 10개국[50]을 가입시켜 25국으로 회원국 수를 늘이면서 시작되었다. EU가 중동부유럽으로 확대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독일의 역할은 향후 독일어와 도이치 문화권이 확대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지 독일어권 언어문화의 확대가 아닌 독일통일과 소련붕괴 이전의 서유럽과 동유럽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유럽'으로 심화하는 데 매개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 나오는 말

앞서 우리는 독일어의 언어변천과 언어발달의 양상을 주변 서유럽 언어들과의 접촉에서 찾아보았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영어화 현상을 통해서 독일어의 발전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럽에서 '링구아 프랑카'의 지위를 영어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불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의 위상도 날로 추

48) 고상두, 앞의 책, p. 191.

49) 옥한석 외, 『세계화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한울, 2005, p. 169.

50) 이 시기에 가입한 중동부유럽은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등이다. 이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가 차례로 가입함으로써 2014년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국이다.

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어가 서유럽 언어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반면, 독일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속해 있는 중부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독일어의 위상이 다른 서유럽어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EU의 회원국 수가 28개국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EU의 확대정책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확대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독일의 역할이 상당히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부상할 독일어의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독일어가 서유럽과 중동부유럽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심화된 유럽연합을 실현하는 언어문화적 매개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독일어 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Spezial Eurobarometer 386, *Die europäischen Bürger und ihre Sprachen*. Bericht, 2012.(http://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Statistische Erhebungen, *Die deutsche Sprache in der Welt,* 2010.(www.daad.de/de/download/broschuere_netzwerk_deutsch/DeutschlernerzahlenNetzwerk_Tabelle_2010.pdf.)

2. 논문

김인천, 「민주화 10년, 체코의 문화갈등 연구. 현대 체코어에 유입된 외래어와 탈표준화를 중심으로」. 정병권 외, 『동유럽 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pp. 65-100.

유진일, 「민주화 10년, 중부유럽의 문화갈등 연구」. 정병권 외, 『동유럽 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pp. 1-30.

이규영, 「탈사회주의와 '중부유럽'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2000, pp. 161-183.

임성우, 「EU 기관에서의 공식어와 실무언어」, 『EU연구』 제1호, Jean Monnet series 1, pp. 147-166.

정병권, 「민주화 10년, 폴란드의 문화갈등 연구」. 정병권 외, 『동유럽 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pp. 31-64.

최경희 · 정진규,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체제이행에 관한 연구. 소유권 변화와 유럽연합의 가입과정을 중심으로」. 이상환 외, 『동유럽의 민주화: 체제이행의 역동성』, 한국외대 출판부, 2004, pp. 123-162.

최관규, 「프랑스의 유럽지역주의와 그 한계」. 박태규 외, 『유럽의 정치와 경제』, 나남, 2002, pp. 53-82.

Eggers, Hans, "Nachlese zur Frühgeschichte des Wortes deutsch." In: Eggers, Hans(Hrsg.): *Der Volksname deutsch*. 1970, pp. 374-391.

Ehrismann, Otfried, "deota/diutisk. Zur frühen Semantik des Wortes deutsch." In: *Sprache in der sozialen und kulturellen Entwicklung. Beiträge eines Kolloquiums zu Ehren von Theodor Frings*. Hrsg. v. Rudolf Grosse. Berlin, 1990, pp. 293-302.

Raith, Joachim, "Lingua franca." In: *Metzler Lexikon Sprache*. Hrsg. v. Helmut Glück. Stuttgart/Weimar, 1993, pp. 367.

Reiffenstein, Ingo, "Bezeichnungen der deutschen Gesamtsprache." In: *Sprachgeschichte. Ein Hand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ihrer Erforschung*. Hrsg. v. Werner Besch et al. New York, 1985, pp. 1717-1727.

Rupp, Heinz, "Entstehung und Sinn des Wortes deutsch. Ein Forschungsbericht." In: *Deutschunterricht* 3, 1951, pp. 74-79.

Weisgerber, Leo, "Theudisk. Der deutsche Volksname und die westliche Sprachgrenze." In: Eggers, Hans(Hrsg.): *Der Volksname deutsch*. Darmstadt, 1970, pp. 103-165.

3. 단행본

고상두, 『통일 독일의 정치적 쟁점』, 오름, 2007.

김진호, 『서독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 냉전과 데탕트 그리고 독일분단 시기』, 파랑새미디어. 2014.

옥한석 외, 『세계화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한울, 2005.

정병권 외, 『동유럽 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한국외대 출판부, 2005.

Berschin, Helmut, *Deutschland - ein Name im Wandel. Die deutsche Frage*

im Spiegel der Sprache, München/Wien, 1979.

Bichsel, Peter, "Englisch macht Deutsch lebendig", *Kölner Stadt-Anzeiger* von 02.08.2001, 2001.

Brüderle, Rainer, "Pattern/Matching im Multiprocessing-Verfahren", Sprachnachrichten 2, 2002, p. 16.(http://www.vds-ev.de/images/stories/startseite/sprachnachrichten/sn2002-02.pdf)

Föhr, Dieter, "Der aufhaltsame Ausstieg aus der deutschen Sprache." In: *Badische Zeitung* von 2001.01.03., 2001.

Jessen, Jens, "Schicksal Denglisch." In: *Die Zeit* von 08.03.2001, 2001.

Kiesler, Reinhard, *Einführung in die Problematik des Vulgärlateins*. Niemeyer, 2006.

Röding-Lange, Ute, *Bezeichnung für Deutschland in der Zeit der Wende. Dargestellt an ausgewählten westdeutschen Printmedien*. Köngishausen/Neumann, 1997.

Roth, Klaus-Hinrich, *Deutsch. Prolegomena zur neueren Wortgeschichte,* München, 1978.

[Abstract]

Status und Rolle von Deutsch in Mittel-Europa

Lim, Seong-Woo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Sprachkontakt und -wandel von Deutsch als europäischer Sprache und ihre Rolle aus der Sicht von EU-Erweiterung betrachtet. Deutsche Sprache war und ist von dem Sprachkontakt erweitert worden, obwohl die Sprachpuristen diese Erweiterung für eine Verarmung halten. Die dauernde Veränderungsfähigkeit macht die deutsche Sprache lebendig. Relativ unbemerkt überlebte Deutsch als Fremdsprache auf einem beträchtlichen Niveau in Mittel- und Osteuropa, wo Deutschlernen eine Tradition war. Überall ist Englisch inzwischen Nummer 1, aber nicht überall mit großem Abstand liegt Deutsch sogar vorn in den mittel- und osteuropäischen Ländern. D.h. diejenigen Bürger, die aus der Nähe zum deutschsprachigen Raum für sich persönliche Vorteile erwarten, lernen ja Deutsch. Aufgrund seiner geographischen Lage und wirtschaftlichen Verbundenheit zu den mittel- und osteuropäischen Ländern wird Deutschland sehr stark von der Europäischen Osterweiterung betroffen sein. Schon jetzt sind viele Unternehmen aus Deutschland in den mittel- und osteuropäischen Staaten aktiv und haben eine gute Position auf dem Markt etablieren können. In diesem Sinne kann die deutsche Sprache sowie Deutschland als eine sprachkultureller Vermittler zwischen der Westeuropa und der Ostmitteleuropa sein.

Key words: Deutsche Sprache, Deutsch, Sprachkontakt, Sprachwandel, EU-Erweiterung, Mitteleuropa, Osteuropa, Status von Deutsch

임성우
영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부교수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712-749)
전화번호: 053)810-2186
전자우편: limsw@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7월 8일 투고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8월 18일 게재 확정함.